전주매일 CMYK

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금연성공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 063) 859-2400 ~ 2410 FAX | 063) 859-2414


# 전주매일

2017년 2월 3일 금요일 (음 1월 7일) 제173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도는 2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교육청, 경찰청, 국토관리청, 해양수산청, 안전관련 공사·공단 등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장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2017년 전북도 안전관리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사진은 송 지사와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는 모습.

# 도민생활 더욱 안전해진다

▶ 도,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 풍수해 등 자연재난 10개
### 화재 등 사회재난 28개
### 안전분야 22개 유형 세분화

### 안전사고 사망자 73명 감축
### 지진 대응방안 연내 완료
### 시설물 안전보강 강화키로

전북도가 올해 재난안전분야 391개 사업에 5,664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도민안전 로드맵을 확정했다.

도에 따르면 2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교육청, 경찰청, 국토관리청, 해양수산청, 안전관련 공사·공단 등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장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북 안전관리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전북도 안전관리계획은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지역 안전관리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관리대책 등 3개 분야 60개 재난유형별 안전관리대책, 재난대응 업무별 상호 협력계획 등이 담겨져 있다.

올해 안전관리계획의 특징은 풍수해 등 자연재난 10개 유형, 화재 등 사회재난 28개 유형, 어린이놀이시설 등 안전관리분야 22개 유형으로 세분화 된 것이다.

특히, 올해에는 재난·안전 유형별 피해현황 파악 및 원인분석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구체화해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계획을 만드는데 중점을 뒀다.

먼저,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4개 분야 안전지수 상승 및 안전사고 사망자 수 획기적 감축에 탄력을 받아, 올해에도 73명 감축목표로 교통, 화재, 감염병, 자살 등 4대 분야 21개 과제(334억원)를 중점 추진해 지역안전지수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을 2020년까지 70% 이상 확보를 목표로 단계별 추진 및 '지진환경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을 연내 완료해 중장기적 대응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풍수해 등 자연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안전관리자문단을 통한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전문기관을 통한 정밀점검 실시 등 안전진단을 확대하고 시설물 안전보강을 강화하는 등 사회재난 및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올해 안전분야 투자예산은 총 391개 사업에 5,664억원으로 전년 4,972억원 대비 13.9%가 증가 됐다.

먼저, 자연재난 분야는 침수지역.급경사지 등 재해위험지구 개선과 하천.용.배수로 정비 및 지진방재 등 총 29개 사업에 2,424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재난 분야는 화재 및 산불 예방, 감염병 예방,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교통시설 개선 등 148개 사업에 863억원, 안전관리 분야는 물놀이 안전시설, 식중독 예방,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등 214개 사업체 2,377억원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기관장들은 재난대응 업무별로 상호간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기관별 임무를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안전한 전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송하진 지사는 "오늘 확정된 안전관리계획이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으려면 각 기관별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도에서는 안전한 전북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 '의혹 폭로' 고영태 최순실 재판에 출석

### 서울중앙지법, 6일 증인 채택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최측근이자 최씨 관련 의혹들을 폭로한 고영태(41)씨가 최씨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고씨를 오는 6일 최씨의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간 잠적설이 나돌며 행방이 묘연했던 고씨는 검찰을 통해 재판부 측에 증인 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고씨가 실제 최순실 법정에 나올 경우 이번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이래 공개석상에서 두 사람이 첫 대면하는 자리가 돼 양 측의 발언 등이 주목된다.

펜싱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고씨는 독일 더블루K 대표, 한국 더블루케이 이사를 맡는 등 최씨의 최측근으로 지냈다.

고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들고 다녀 화제가 된 가방 브랜드 '빌로밀로'를 만든 인물이기도 한다. 그는 지난해 10월 "2012년께 최순실씨와는 가방 관련 사업 때문에 우연찮게 알게 된 사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고씨는 최씨와 사이가 틀어진 뒤 '최순실 게이트'의 내부고발자를 자처했다.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각종 폭로성 발언을 쏟아냈다. /뉴시스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매일 INDEX

3면 - 김영재 원장 부인에 구속영장 청구
12면 - 책으로 보는 벽골제의 역사
14면 - 무주 설천고 만학도 졸업생 '화제'

社 告

제3회 무주군 체육협의회장배

## 전국 스키·스노보드 대회

기간: 2017년 2월 16일(목) ~ 2월 17일(금)
장소: 무주 덕유산리조트 스키장

전주매일신문이 동계스포츠 인구 저변확대와 유망주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무주군수배 스키·스노보드대회'를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최: 전주매일신문
▲공동주관: 전주매일신문, 전북스키협회
▲후원: 전북도, 무주군, 무주덕유산리조트
▲참가자격: 스키(만 10세 이상), 스노보드(고교생 이상)
▲접수기간: 2017년 2월 15일까지
▲참가접수: 이메일(jjmaeil1@hanmail.net) 또는 팩스(063-288-9703), 홈페이지(www.jjmaeil.com)
▲문의: 전주매일신문 문화사업국(063-288-9700)

전 주 매 일

# 나노탄소 석학들 무주 집결

### 5일부터 학술대회 개최

전북도는 탄소산업 육성과 연계한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제4회 나노탄소국제학술대회를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무주에서 개최한다.

나노탄소 국제학술대회는 탄소관련 나노구조 물리학 연구분야를 선도하는 미주.유럽등 9개국의 국내외 정상급 연구기관 소속 박사 및 연구원등 350여명이 참여한다.

학술대회는 탄소기반 물질과 응용분야에 대한 최근 연구결과 및 동향을 공유하는 장으로써 국내 최대 규모의 권위 있는 학술대회의 하나로 자리매김 되고 있으며. 성균관대학교 나노구조물리연구단이 주관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캐리어역학, 2차원 나노구조 2D물질 합성 및 물성, 열전물질 분야 등에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하버드대학교 Philip Kim 교수와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Stefan Kaiser 교수 등 9개국 26명의 세계적 석학들을 강사로 초빙해 특별강연, 초청강연,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안재용 기자